Monthly | Vol.549 | March 2024

Design

월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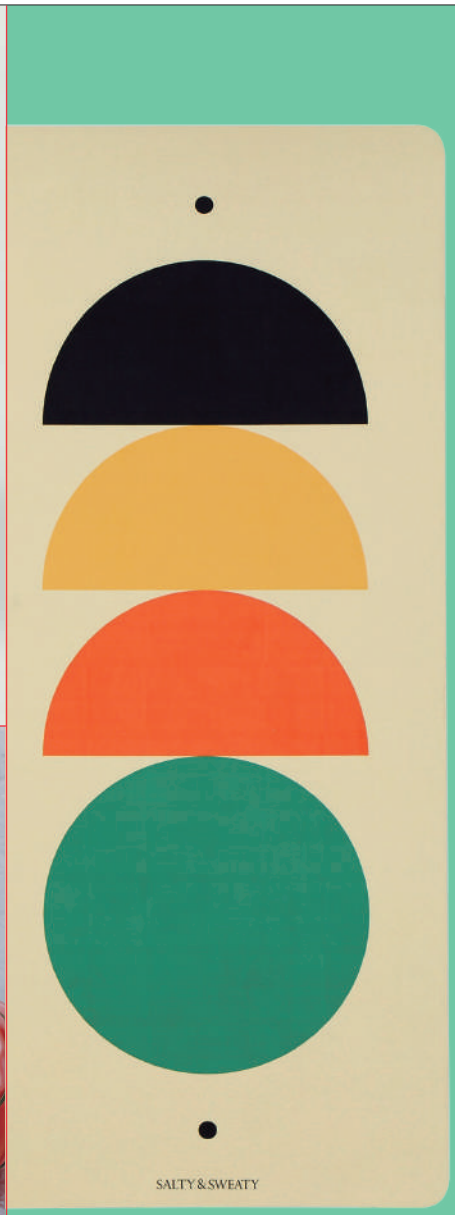
www.design.co.kr | monthlydesign | 15,000원

Special Feature | 헬시 플레저, 디자이너를 위한 다섯 가지 처방전

❶ 스테이 필드, 스타필드 수원 ❷ 세대와 국경을 넘는 캐릭터 IP, 오콘 우지희

월간 디자인 Vol.549 Design 헬시 플레저, 디자이너를 위한 다섯 가지 처방전

건강하게 룸런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헬시 플레저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다섯 가지 처방전을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소개한다.



9 788970 414294 03050

designhouse

처방 2

「#오운완」을 위한 복장과 도구 갖추기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홈트족을 공략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은 차별화된 디자인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들이 출시한 제품은 운동 도구라기보다 근사한 인테리어 소품, 혹은 가구에 가깝다. 럭셔리 브랜드도 한정판 홈트레이닝용품을 출시하거나 피트니스 센터를 표방한 팝업 전시를 열며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갈수록 선택지가 늘어나는 운동용품과 함께 #오운완 매력에 빠진 이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애슬레저 룩이다. 애슬레저는 운동(athletic)과 여가(leisure)의 합성어로, 스포츠웨어처럼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일상복처럼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뭐든 장비부터 갖춰놓아야 운동할 마음이 드는 '방구석 운동러'들을 위해 다채로운 운동 패션과 도구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운동의 일상화를 실현시켜줄 아이템 유니버스

운동을 미루기 위한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 각종 운동 기구가 헬스장이 아닌 집 안에 안착했다. 스포츠웨어는 일상복을 넘어 이제 오피스 룩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경계를 허무는 운동 아이템을 살펴볼 차례다. **글** 오상희 객원 기자 **담당** 서민경 기자

푸오리피스타

바퀴살이 없어 사이클링 기구라기보다 조각 작품으로 보이는 '푸오리피스타Fuoripista'는 홈짐이나 헬스장이 아닌 박물관에 더 어울릴 법하다. 2017년 이탈리아의 유명 사이클링 액세서리 및 테크놀로지 회사 엘리트(elite-it.com)와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아드리아노 디자인(adrianodesign.it)의 파트너십으로 밀라노 가구 박람회의 꽃인 살로네 사틀리테 20주년 전시에서 첫선을 보였다. 강화유리와 방수 코팅한 너도밤나무,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적용한 이 제품 시리즈는 심미성은 물론 기능성까지 두루 충족시킨다. '사이클링 운동'을 위한 기구답게 전원 연결 없이 충전 시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했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OLED 디스플레이, 체력이나 작업 능력을 평가하는 측정 장치인 에르고미터 등을 장착했다.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등을 활용해 버추얼 코치나 커뮤니티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아드리아노 디자인의 설명처럼, 푸오리피스타는 인체 공학적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로 실내 사이클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제안한다. 지난 1월 메종 & 오브제에서 손잡이와 다리를 가죽으로 감싼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다.
fuoripista.it